

2023년 7월 16일 “여호수아(12) 레위 지파의 하늘의 유업”(수 13:32-33)

이스라엘이 유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더 좋은 유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약속 받습니다(롬 8:16-17). 인간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의 소유를 상속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속과 하나님 나라 상속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속은 자녀이기만 하면 받지만 하나님의 상속은 조건부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유업의 땅을 받는 과정을 통해 살았습니다.

- (1) 할례(3 장): 약속의 백성임을 확인;
- (2) 죄의 고백과 말씀으로 무장(7 장):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
- (3) 공동체 안에서 받아줌과 서로 짐을 져 줌(9 장): 공동체적 하나됨 추구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가 되는 데에는 믿음 외에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 없지만 상속을 얻는 데에는 이런 영적 조건이 요구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유업으로 여겨지는 땅을 레위 지파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수 13:14, 14:3, 민 18:20), 땅보다 좋은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막에 관련된 직분을 주셔서 그들과 밀착된 교제를 가지며 하늘의 유업을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2] 하늘의 유업 - 하늘의 속성과 가치를 담은 삶

레위인들이 일한 성막에서 행해진 제사의 절차와 사용된 기구들은 천국의 모형입니다(히 9:23). 이 성막 직무를 통해 하나님과 밀착된 삶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누릴 때, 다른 지파들에게 궁극적 유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에게 요구된 삶의 방식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삶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성전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몸입니다(고전 3:16, 6:19, 고후 6:16).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늘의 사랑, 평강, 자유가 부어지는 길로 삼고, 또한 그런 삶을 간증하고 나눌 때 서로에게 유업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약에서는 땅과 더불어 장수, 부, 많은 후손이 축복이 넘치는 유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러한 것을 유업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는 하늘 유업을 중심 주제로서 선포하고 그것을 얻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골 1:12, 3:24, 엡 1:18b, 벧전 1:4 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세 영역을 기억해 보십시오.

- (1) 가정에서 부부, 부모/자녀관계를 주님의 사랑의 뜻을 따르며 유업의 통로로 삼는 것;
- (2) 직장을 통한 소명의 현장에서 창조의 뜻에 의하여 동기부여를 갖고 가꾸고 지키는 것;
- (3)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적 정신과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주님께 의탁하기.

우리가 얻는 모든 하늘 유업의 DNA 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어 주시는 희생적 신적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은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연대감을 누리며 하늘의 축복을 이 땅 위에 재현하는 아름다운 참 능력이 될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 배우신 대로 멋진 유업의 모델로서 하늘의 사랑의 유업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